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훌륭히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건축의 본보기거리, 로동당 시대의 선경거리로 훌륭히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 2월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며 우리 인민의 문명의 발전속도, 나라의 힘, 당의 정책이 건설에서 직관적으로 나타나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군민협동작전으로 미래과학자거리건설을 제기일에 끝낼테 대한 영예로운 파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건설자들이 공사장전역에서 이룩되고 있는 성과를 계속 확대하여 대상별, 단계별파제를 일정계획대로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건설력량을 증강해주시고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미래과학자거리건설을 적극 지원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무한히 고무된 건설자들은 낫과 밤이 따로없는 총공격전을 벌림으로써 미래과학자거리 1단계 건설을 올해 태양절전으로 끝내는데 이어 2단계 건설도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완공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이 건설된 미래과학자거리는 인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교육자, 과학자들을 참다운 애국자, 혁명가로 값높이 내세워주시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뜨거운 은덕이 넣은 사랑의 기념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를 바라보시며 볼수록 멋있고 웅장화려하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리, 주체성, 민족성, 독창성, 조형예술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희한한 거



리, 문명개화기가 더욱 활짝 꽂쳐나는 시대에 수도 평양에 펼쳐진 우리식의 특색있는 거리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하늘을 찌를듯 높이 솟아오른 미래과학자거리의 모든 건축물마다에는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그대로 응축되어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천세대의 살림집과 150여개의 봉사망들을 갖춘 옹근 하나의 거리를 일떠세운다는 것은 기존 건설공법으로써는 상상도 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미래과학자거리를 보니 10년을 1년으로 앞당기는 우리 조국이 10년후면 더욱 몰라보게 전변될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충성의

다리에서 양각다리까지의 대동강호안을 따라 초고층살림집들과 뚝음식살림집들이 조화롭게 들어앉았다고 하시면서 건물의 외벽을 갖가지 색타일로 마감하고 지붕형식도 새롭고 특색있게 시공하니 미래과학자거리가 천연색거리로 되었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당이 천사만사인 국사중에 과학기술발전을 어떻게 중시하고 있으며 과학의 힘으로 세상에 다시없는 인민의 락원, 강성국가를 건설해가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알려면 미래과학자거리에 와보면 될것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의 전경을 보고 또 보시며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선경거리가 일떠섬으로써 우리 조국의 문명의 중심인 혁명의 수도 평양시는 더욱 웅장화려하게 변모되었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가장 경사스

러운 혁명적명절로 뜻깊게 경축한 시기에 미래과학자거리가 훌륭히 일떠선것은 우리 당의 건축미학사상의 정당성과 자립경제의 잠재력에 대한 일대 시위로 되며 당의 부름에 산악같이 일떠서는 선군조선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다시한번 온 세계에 파시한 사변으로 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건설을 위해 조선인민군 제521사단을 조직하였는데 군인건설자들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 본보기답게 초고층살림집을 비롯한 제일 방대한 공사량을 맡아 《단숨에》의 공격정신을 발휘함으로써 우리 인민군대의 전투적기상을 힘있게 파시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수도건설부문과 성, 중앙기관 돌격대를 비롯한 건설에 참가한 단위들의 건설자들과 지원자들도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구호를 높이 들고 건설의 질과 속도를 보장함으로써 멋쟁이건축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건설력사에 전례없는 비상한 속도로 솟아오른 미래과학자거리의 모든 건축물들은 당이 번개를 치면 우뢰로 화답하며 앞날에 대한 락관을 안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소중한것을 자기식으로 창조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피끓는 심장으로 일떠세운 선군조선의 궁지높은 창조물, 요소요소마다에 애국심이 뜨겁게 어려있는 고귀한 결정체라고 하시면서 건설에 참가한 부대들과 단위들, 건설자들, 지원자들에게 조선로동당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 준공과 관련한 지시를 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합동공연, 청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합동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애국가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혼성 중창과 남성 합창 《어머니생일》, 경음악과 노래연곡 《조선로동당 만세》, 남성 독창과 합창 《당을 노래하노라》, 남성 합창 《조선의 모습》, 기악과 노래 《사랑하노라》, 관현악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너성 중창 《보람듯이》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공훈국가합창단에서는 새로 창작형상한 남성 3중창과 합창 《조선로동당찬가》, 남성 합창 《빛나라 태양의 그 이름》, 《조선의 진군가》, 모란봉악단의 예술인들은 《우리의 김정은동지》, 《뵙고싶었습니다》, 《그리움은 나의 행복》, 《운명의 손길》, 《우리는 당기를 사랑하네》, 《우리 당 영원히 따르리》와 같은 새 노래들을 훌륭히 창작형상하여 무

대에 올렸다.

공연은 남성 5중창과 남성 합창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남성 합창 《가리라 백두산으로》, 관현악과 노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로 최절정을 이루었다.

공연은 종곡 《어머니생일》로 끝났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솟구치는 격정에 겨워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손을 저어주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인민에 대한 어머니당의 사랑과 정이 맥박치고 우리 당을 따라 영원히 대를 이어 충정다해갈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파시하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청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서곡 《당을 노래하노라》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너성 2중창과 방창 《장군님 생각》, 트럼베트를 위한 경음악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 너성 중창 《사랑하노라》, 《조선의 모습》, 경음악 《사회주의 지키세》, 너성 4중창과 방창 《영원한 메아리》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너성 중창 《우리는 혁명의 계승자》는 관람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 《우리의 행군길》, 《어머니당의 품》, 《어머니의 목소리》, 《그대는 어머니》,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등

의 곡목들을 펼친 기악과 노래연곡 《높

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는 공연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새롭게 창조형상된 너성 3중창과 방창 《당이여 그대 있기에》, 너성 3중창 《친근한 우리 원수님》은 관람자들의 경탄을 불러일으켰다.

공연은 종곡 《조선로동당 만세》, 《천리라도 만리라도》로 끝났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리러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혁명의 나팔수, 사상적기수가 되여 당중앙이 의도한대로 백두산의 청진한 넛이 어리여있는 악단의 이름을 예술활동실천으로 빛내이며 주체문화예술발전에 크게 이바지해가는 청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를 찾으시고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지말씀판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기업소와 련관부문의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들은 낫과 밤이 따로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리며 쳐단기술을 요구하는 지하전동차를 우리식으로 개발생산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당에서 준 과업을 수행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정말 기뻤다고 하시면서 10월 10일까지 지하전동차를 무조건 만들어내놓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느라 그동안 수고들이 많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의 형태와 색갈, 기술적특성, 의장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하전동차가 정말 멋있다고 하시면서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특성과 현대적미감에 맞게 형태와 색갈을 잘 선정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와 련관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들이 합심하여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가 운행을 시작하면 인민들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면서 교통운수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찰하며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하전동차를 비롯한 대중교통수단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만들어내는것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꽂퍼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현대적인 지하전동차를 계렬생산하고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기업소를 돌아보면서 과업을 준대로 생산과정의 CNC화, 무인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이 만들어낸 지하전동차를 보고 또 보시며 정말 잘 만들었다고 뜻내 기뻐하시면서 우리식

의 지하전동차를 새로 개발생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지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여 마련해 주신 주체공업의 거대한 잠재력과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들, 과학자, 기술자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끓어번지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타는 충정의 마음, 불굴의 정신력이 있었기에 짧은 기간에 훌륭히 만들어낼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로

동계급의 투쟁본때가 어려있는 지하전동차는 자신에게 큰 힘을 안겨주었다고 하시면서 당에 무한히 충직하고 슬기로운 우리의 로동계급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있기에 마음은 든든하며 사회주의조선의 힘은 무한대이라는 궁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가슴이 후더워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지하전동차개발자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꼭 전달해달라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당의 나이와 같은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우리식의 새로운 지하전동차를 만들어냄으로써 우리의 10월이 더 빛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고귀한 땀방울로 당과 인민에게 드리는 훌륭한 열매를 마련한 기업소와 련관부문의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들에게 조선로동당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본사기자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습니다.》 김정은

평양에서 성대히 거행된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하신 연설내용은 자자구구 인민 존중, 인민중시, 인민사랑으로 일관되어 있다. 조선로동당의 70년사를 총화하시면서 그이께서는 당시 붉은 기폭에 마치와 낫과 붓을 아로새긴 때로부터 인민과 한시도 떨어져 본적이 없으며 언제나 인민을 하늘처럼 섬기며 혁명을 전진 시켜왔다고 하시였다.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하고 오직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 인민 존중, 인민사랑의 정치에 조선로동당의 빛나는 혁신과 자랑찬 업적이 있고 불폐성이 있는 것이다.

인민은 하늘이다, 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좌우명이다.

무릇 위인에 대하여 알려면 그의 좌우명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위인의 좌우명은 그의 모든 활동에 관통되는 신조와 인격을 보여준다. 동서고금 혁대의

명인들은 다 자기의 좌우명이 있었다. 지칠줄 모르는 투쟁을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근로 인민의 자주적 운명개척과 폐암 박민족해방워업에 헌신한 위인도 있고 애국을 좌우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공헌한 위인도 있다.

그러나 인류가 기록한 위인 사의 갈피에는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 위인, 명사는 없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

위천의 정치철학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 인민존중의 인더정

치에 의해 오늘 온 나라에 사

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리

고 있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

하여!》가 인민중시, 인민복

무의 구호로 되고 있으며 국가

의 모든 로선과 정책, 시책과

혜택은 철두철미 인민의 요구

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것으로 일관되고 있다. 인민국

장, 룹라인민체육공원,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연풍파학자휴양소,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등을 비롯한 모든 건설물, 창조물들에는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과 헌신의 세계가 어리여 있다.

예로부터 민심을 얻어 나라를 다스리는것을 정치의 근본으로 일리왔다. 백성을 돌보고 백성의 마음을 움직여 이루어지는 정치를 가장 성공적인 정치로 보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러한 견해가 정치에 구현된 적은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이민위천의 리념과 정치경륜에 의하여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새 혁신이 되었

고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출기차게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자

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

다. 일군을 위하여 인민이 있

는 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일군이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는 일군들이

인민의 머리우에 군림한 판료가 아니라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복무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

이 담겨져 있다. 인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당의 로선과 국가정책에 담아야 하고 인민들이 군

중대회 같은데서만 아니라 외진 섬이나 깊은 산골에 홀로 있을 때에도 스스로로 동당만세를 부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이의 의도이다.

어머니사랑은 늘 자애롭고 다심하고 부드럽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올 무한히 헌신적이고 그 어떤 보수나 대가를 원하지 않으며 오로지 사랑을 기울이는데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우리 인민이 제일 위대한 인민이며 이런 훌륭한 인민을 위하여 불타는 강도 서슴없이 건느고 힘한 가시발도 웃으며 헤쳐나가는 인민의 수호자,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려고 한다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신 그이의 사랑과 헌신에 의해 인민의 안녕과 행복이 담보되고 강성번영의 미래가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다.

『조선인민이 야말로 국사를 론하는 정치가이다, 조선에 특권층이 있다면 그는 인민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한해서는 선교가 필요 없다. 공화국은 성서의 교리를 이미 실현된 나라, 예수가 꿈꾸던 리상사회이며 주체의 락원이 지구촌에 생겨난 민중복락의 동산이다.』

조선을 다녀간 외국인들의 소감이다.

이민위천의 리념을 구현하여 인민의 꿈과 리상을 빛나는 현실로 펼치는 공화국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민족대중 중심의 나라, 민족대중제일주의의 나라다.

본사기자 리설

령도자의 좌우명- 인민은 하늘



새 집들이 기쁨과 감격 속에 노래 부르며 춤을 추는 라선시 피해 지역 주민들

애민현신의 길에서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 있을 수 없다

세해전 11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완공을 앞둔 류경원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 현관홀을 둘러보신 다음 중앙홀에 이르시였을 때였다. 그곳을 휴식홀로 꾸리려고 한다는 것을 아신 원수님께서는 국장이 아니므로 중앙홀에 주단을 깔기는 곤란하다고 하시며 공간에 기단을 형성하고 둘로 조각같은것을 만들어놓으며 매대도 만들어놓고 손님들에게 청량음료 같은것을 봉사해주면 좋을것이라고 하시였다. 휴식홀인 만큼 의자도 놓도록 할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전식 한증간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한증간을 둘러막은 유리벽체도 만져보시면서 그이께서는 유리이음짬에 넓은 떠를 대고 씨리꾼을 쏘아넣으면 장식도 되고 열손실도 막을수 있다. 그리고 가르쳐주시었으며 유효물 소독과 려파와 관련한 대책적 문제도 세워주시였다. 소금한증간, 소나무한증간, 종유석 한증간도 일일이 돌아

보신 그이께서는 한증을 앉아서 편히 할수 있게 의자를 놓도록 할데 대해 지시하시였다. 한증간 휴식홀의 의자를 보시고는 의자에는 일반천을 씌우지 말고 소독수로 닦아낼수 있게 수저물을 입힌 천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고, 대중목욕탕 같은데는 호화로운 형식을 취하는것 보다는 위생성을 보장하는것이 첫째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병에 걸릴수 있다고 하시였다. 인민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구체적이고 세심한 가르침이였다.

이 뿐이 아니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안실과 행실, 리발실의 소독수와 가족목욕탕 접수칸벽에 계시된 목욕탕리용질서 알림판에 이르기까지 불비한 요소들을 바로 잡도록 지적하시였다.

그날 류경원시공정형을 구석구석 다 헤아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18일 남조선의 한 언론은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행사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은제1위원장이 25분 동안 진행한 연설에서 〈인민〉을 97번이나 언급 했다.』고 소개하였다.

세계의 많은 언론들도 주목하고 대서특필한것처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연설내내 인민에 대해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성스러운 70년력사를 종화하는 자리에서 우리 당의 혁신을 보시고는 의자에는 일

당의 혁신을 보장하는것이 첫째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병에 걸릴수 있다고 하시였다. 인민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구체적이고 세심한 가르침이였다.

인민에 대한 고마움을 펴려면 말을 시작되며 시작되며 나라이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편의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다는 내용으로 절정을 이룬 연설은 우리 모두 위대

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 해 나아갑시다!라는 격동적인 사랑의 호소로 끝을 맺었다.

세상에 이런 연설이 또 있을까요. 인민, 인민 또 인민.

그이의 온넋과 심중에 불리는 일념과 생각은 오직 인민, 그 인민에 대한 절대복무의 정신임을 연설을 들으면 보수나 대가를 원하지 않으면 온몸이 찌릿하게 느

하는 한 인터넷홈페이지에 정치철학을 알게 되었다.

당도 국가도 인민을 떠나서는 그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오직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 때만이 그 생명력을 유지할수 있다는것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고 숭고한 정치경륜이다.

하기에 그분께서는 10월의 광장에서 하신 연설에서 조선로동당은 당을 진

심으로 따르는 인민의 마음을 혁명의 제일재부로 소중히 간

직할것이며 용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발도 헤치며 미래의 휘황한 모든것을 당겨올것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신것 아니겠는가.

인민을 제일로 위하시는 김정은원수님의 손길아래 가꾸어져가는 사회주의문명국, 천하제일강국은 인민의 유품가는 천국, 락원으로 온 세상에 빛을 뿌리게 되리라는것을 나는 굳게 믿는다.

재미동포 리경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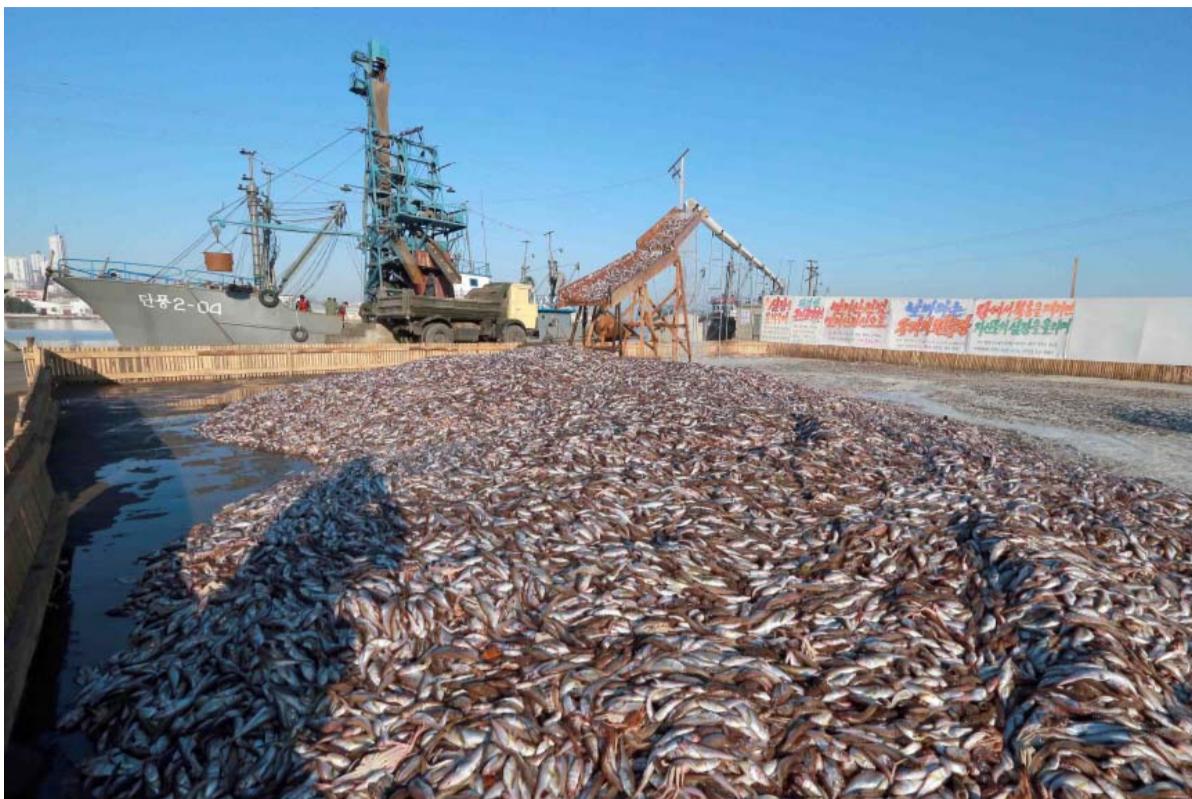
97번이나 불러주신 《인민》

끼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주석단 초대석에서 그분의 연설을 들으며 눈굽이 뜨거워짐을 어쩔수 없었다.

세계에 정치가는 많아도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존중,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숭고한 혁신을 펼쳐가는 것이다.

인민을 무려 97번이나 불러주시며 하늘높이 떠받드신 그분의 연설에서 온 세계는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들의 석탁우에 풍겨나는 바다향기



지금 공화국에서는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지는 속에 어디 가나 사회주의 바다향기가 진하게 풍기고 있다.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각종 물고기를 사가며 기쁨에 겨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면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풍성하게 먹이시려고 애민현신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의 날과 달들이 뜨겁게 어리여온다.

인민들의 식생활수준을 높이는데서 수산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몇 해 어간에만도 이 부문사업을 진두에서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지난해 11월 인민군대의 어느 한 수산사업소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전례없는 물고기대풍을 이루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찾아왔다시며 어로공들의 성파를 치하해주신 원수님께서는 하루장에서 물고기가 폭포처럼 쏟아지는것을 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희한한 풍경을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물고기대풍을 마련해놓고보니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쳐오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만고풍상이 가슴에 마쳐온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평생 조국의 산과 들을 황금산, 황금벌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찰하는것과 함께 사회주의조국의 바다도 황금해로 만드는것이 우리의 숭고한 의무라고 하시며 올해는 황금해의 력사가 시작된 해라고, 인민군대는 황금해역사창조의 선구자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이윽하여 만선기를 날리며 부두에 들어선 《단풍2-04》호에 오르신 그이께서는 선창에 가득한 물고기를 보시고 정말 기분이 좋다고, 년간에 쌓였던 피로가 한순간에 풀린다고 하시며 노래 구절에도 있듯이 포구엔

만선의 배고동소리 선창엔 물고기 가득이라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정녕 그날의 원수님의 모습은 폐년에 없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떠나갈

땐 빈배로 가지만 돌아올 때는 배전에 넘친다고 즐겁게 노래를 부르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자애로운 모습이였다. 또 어느 한 양어장과 바다가 양어사업소를 찾으시여 물질반, 고기절반이라고, 철갑상어는 바다로, 조선은 세계로라고 걱정을 터치시던, 락산의 바다에서 보내온 10여kg이나 되는 조선의 연어를 버쩍 들어올리시고 세계여 조선을 보라, 우리 인민들이 이제는 연어를 먹게 되었다고 웨치고싶다고 외우시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거룩한 모습그대로였다.

인민군대가 황금해의 력사를 창조하는데서도 앞장서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정력적인 령도로 물고기대풍이 마련되었을 때에는 인민들을 생각하여 그리도 만족해하시며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 부르시여 값높은 평가도 해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신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력사적인 올해신년사에서도 수산을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수준을 하루빨리 높이기 위한 3대 죽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난초부터 정력적인 령도의 나날들을 보내시였다.

인민군대의 어구종합공장도 현지지도하시고 새로 건설한 어분사료공장과 금산포젓갈가공공장, 금산포수산사업소, 석막대서양연어종어장, 락산바다연어양어장 등도 찾으시며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물고기가 차례지도록 하기 위한 강령적인 가르침들을 주시였다.

언제나 인민생활향상을

첫 자리에 놓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정치하에서 인민들의 생활은 날로 더욱 향상되어가고 있다.

본사기자 김철진

지난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가 진행된 김일성광장에 울려퍼진 력사적인 연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시종 인민에 대해 강조하시였다.

인민의 불같은 충정이 굽이치는 승리의 광장, 경축의 광장에 서고보니 우

리 인민을 떠난 오늘의 이자리를 어떻게 생각이나 할수 있으랴 하는 인민에 대한 고마움에 지금 이 시각 경건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인민들의 정겨운 눈빛들을 마주하게 된 다고, 조선로동당이 장장 70년세월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이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기며 혁명을 전진시켜올수 있은것

내세워주신 원수님.

그 사랑과 정과 믿음은 나라 인민이 소리없이 울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성대하게 경축하는 광장에서 위대한 인민이라고 불러주신 공화국인민은 과연 어떤 인민인가.

《통일신보》편집국은 조선로동당의 력사, 공화국의 력사에 찬란히 빛나는 위대한 인민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을 현재기사형식으로 소개해본다.

온 당을 운명의 전부로 믿고 따르며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밟아온 위대한 인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시며 사랑하는 인민을 『위대한 인민』으로 높이 내세워주신 원수님.

그 사랑과 정과 믿음은 편지로 전해온 위대한 인민들이 그것으로 자기들의 가슴속에 차넘치는 충정의 마음을 표현할수 없었다. 인민들은 김일성장군님의 은덕을 마음껏 노래하고 후손만대에 걸이 전하여 갈 충정의 송가를 절실히 요구하였다.

온 나라 각지에서 남녀로소, 각계각층이 뜨거운 소망을 담은 편지를 당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앞으로 수많이 보내여왔다. 그중 한 편지에는 이렇게 씌여있었다.

『...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겨례의 기쁨과 만백성의 소원을 성취하게 하여주신 장군님의 은덕의 고마움을 목이 터지게 웨치는 만세만으로는 표현할수가 없는것이 안타깝습니다. 바라건데 우리 3천만 겨례가 한결같이 바라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노래를

인민들은 편지뿐아니라 충정의 마음을 담아 가사와 곡을 지어 보내기도 하였다. 이렇듯 해방후 태양송가창작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기대와 넘원이고 강렬한 지향이며 의지였다.

김일성장군님의 노래를 지어야 한다고,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불러갈 영원한 노래로 되게 잘 지어야 한다는 백두의 너장군 김정숙녀사의 가르침에 고무되어, 온 나라 인민의 절절한 넘원을 담아 창작가들은 송가창작에 심혈을 바치였다. 열혈시인 리찬은 송가창작을 위해 산에서 싸운 항일투사들로부터 절세위인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설한 흡쓰는 항일의 전장에서 풍찬로숙하시며 백두산 줄기줄기에, 압록강 굽이굽이에 조국을 찾아주신 만고절세

작아도 실리가 큰 공장

얼마전 우리는 평양시 통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류경생활용품공장을 찾았다. 생활용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의 사명에 맞게 건물은 무척 아담하고 산뜻하였다. 정문에 들어서는 우리를 간명 책임기사가 반겨맞아주며 제품진열실로 안내하였다.

『이 제품들은 모두 우리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우리 공장제품을 사용해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위생성이 보장되고 그 질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기 공장제품에 대한 애착이 강렬하게 느껴지는 책임기사의 말이었다.

그의 말대로 파연 전시된 생활용품들은 자랑할 만한것이었다. 여러 가지 호수의 애기기저귀들이며 각종 용도의 생활용품들은 세련된 포장부터 눈길을 끌었다. 그 질도 매우 높아 현재 상점들에서 손님들의 호평을 받으며 판매되는 제품들이었다.

우리의 속생각을 알아맞추기라도 한듯 『우리 공장은 생산공간이나 생산인원에 비해 실리가 큰 공장입니다.』라고 말하는 책임기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의 말을 립중이나 하듯이 기대들마다에서는 생활용품들이 줄지어 생산되고 있었다. 고속흐름공정으로 되어있는 공장에서는 하루에 수십만개의 생활용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로동자들은 생활용품 생산에서 중요한것은 제품의 위생안전성을 보장하는것임을 자각하고 생산현장의 무진화, 무균화를 철저히 실현해가고 있다.

흐뭇한 마음으로 현장에서 나와 과학기술보급실로 발걸음을 옮기었다. 매일 저녁마다 이곳은 원격대학의 강의를 받는 종업원들로 들어찬다고 한다. 과학기술보급실에서 배운 지식으로 기술혁신을 하여 제품의 질을 더욱 높여가고있다는 이 공장로동자들이다.

공장의 어느 곳에서나 제품의 질을 높이고 가치수를 늘이기 위한 혁신의 불바람이 일고있었다. 이 공장에서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았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언제나 만족을 모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어나가려는 일념으로 질좋은 생활용품들을 생산해나가는 이 공장 기술자들과로동자들의 뜨거운 애국열의에 있는것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류경생활용품공장을 자신에게 큰 도움을 주는 애국공장이라고 정을 담아 불려주신것이 아닌가. 우리는 일터마다에 인민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류경생활용품공장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래일을 그려보며 공장을 떠났다.

본사기자 김혜성



위대한 인민의 모습

해방정국에 울려퍼진 『김일성장군의 노래』

의 애국자 김일성장군님.

시인은 인민들의 충정의 마음을 대변하여 주옥같은 글줄들을 창작하였다. 가사를 받아든 작곡가도 끊어오르는 격정을 안고 짧은 시일안에 곡을 완성하였다.

드디어 불멸의 혁명송가가 이 땅우에 탄생하게 되었다.

장백산 줄기줄기 펴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펴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꽂다발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욱(후렴)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어느날 이 노래가 창작된것을 아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노래를 내보내지 말데 대해 간곡히 이르시였다 고 한다. 그러나 태양을 칭송하고 태양만을 따르려는 민족의 격류는 계속 사품쳐 흘렀다.

김일성장군, 그 거룩하신 존함은 가리울수 없는 태양의 빛이었다.

만백성의 마음이 합쳐져 나온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나오자마자 삽시에 일파만파로 온 나라에 울려퍼지였다.

남녀로소모두가 이 노래를 배우고 이 노래를 부르며 민주조선전국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사람들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이 노래가 장엄하게 울려퍼지는 속에 공화국은 창조와 건설, 승리의 빛나는 력사를 아로새겨왔다.

세월이 흘러 백년, 천년이 가도 겨레가 영원히 기억하고 심장으로 부를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이렇듯 위대한 인민이 새 조국건설의 첫 기슭에서 절세위인께 바친 매혹과 충정의 결정체였다.

본사기자 김춘경

오늘도 이 땅 어디서나, 5대 끝방곡곡에서 힘차게 울려퍼지고있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어느 한두 작가와 작곡가에 의해 탄생한 노래가 아니다. 김일성장군님을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는 온 나라 인민의 뜨거운 심장의 퍼가 가사가 되

고 선률이 되여 해방정국에 울려퍼진 시대의 명곡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펴어린 창일대전으로 일제를 격멸하시고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아주시였을 때 온 겨레는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젖어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해방 만세!』를 목청껏 웨쳤다.

돌이켜보면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력사에는 범민족대회가 찬연히 아로새겨져 있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남조선당국은 7·4공동성명에 배치되며 《북방정책》과 《두 개 조선》의 국제적 합법화》를 들고 나면서 분렬영구고착화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었다. 그런가하면 북남민간단체들이 이의 접촉과 협력도 가로막아나섰다.

통일운동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파쑈적인 탄압은 사선을 넘어 평양을 방문하였던 문익환 목사와 《전대협》 대표를 돌아가자마자 잡아가두고 박해를 가한데서 국도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세에서 공화국은 민족의 자주통일운동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북과 남, 해외의 여러 통일운동단체 대표들과 각계의 애국인사들이 참가하는 범민족대회를 열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주체79(1990)년 8월 13일 민족의 성지 백두산 정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개막과 백두—한나대 행진 출정식이 성대히 진행되며 8월 15일에는 민족분열의 비운이 서려있는 판문점에서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1차 범민족대회가 민족 공동의 혁신적인 회합으로 성황리에 열리였다.

나라가 분렬된 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8·15범민족대회는 통일념원을 안고 모여온 북과 남, 해외동포들의 뜨거운 조국통일 열기로 굽이치는 민족 대단합의 회합이었다. 범민족대회에서는 대표들의 일치한 의사에 따라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문제를 대회의 정으로 상정시켜 토의하였으며 대회결의문과 해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북남당국과 유엔사무총장,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와 일련의 문건들을 만장

일치로 채택하였다.

제1차 범민족대회 이후 해마다 진행된 범민족대회들을 계기로 삼천리강토에는 통일운동의 격류가 세차게 굽이쳤다. 특히 주체84(1995)년에 열린 조국해방 50돐 민족통일대축전은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더욱 들통히 하여 통일사에 그 자욱을 력력히 아로새겼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통일유훈을 받들어 공화국정부는 1995년 1월 24일 평양에서 공화국정당, 단체련합회의를 열고 조국해방 50돐을 맞으며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였으며 8·15를 계기로 판문점에서 대민족회의를 열고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를 협의 확정할 때 대안을 담은 호소문을 채택발표하였다.

이 호소문의 정신에 따라

3월 7일에는 조국해방 50돐 경축 민족통일대축전을 성사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주관해나갈 비상설조직으로서 《조국해방 50돐 민족통일대축전 북측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4월 22일에는 남조선의 여러 통일운동단체들과 개별적인 사람들에 의해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가, 6월 20일에는 해외동포들에 의해 《조국해방 50돐 민족통일대축전 해외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7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중국의 베이징에서 북, 남, 해외준비위원회 대표들의 회담이 진행되고 공동합의문이 채택되었다.

북과 남, 해외에서 민족통일대축전준비사업이 활기있게 벌어지고 공동합의문까지 발표되자 남조선의 《문민정권》

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통일원》 대변인을 내세워 8·15민족공동행사불허를 공언하면서 남측준비위원회가 공화국과 연계를 가진 것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에 위반된다고 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위협해나섰다.

하지만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자주통일을 앞당겨오려는 공화국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투쟁에 의하여 조국해방 50돐 민족통일대축전은 성과적으로 막을 올리게 되었다.

범민족대회의 혁사에서 절정을 이룬 것은 주체88(1999)년에 진행된 제10차 8·15범민족대회였다.

당시 공화국은 이 대회가 북과 남, 해외가 다같이 참가하는 명실상부한 범민족대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행사의 명칭도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

을 위한 99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략칭 범민족통일대축전)》로 정하고 남조선의 각이한 통일애국민주단체들도 다참가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하여 축전사상 처음으로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인 범민련 남측본부와 《전국련합》, 《한총련》 대표들이 평양에 왔다. 그리고 《민주로총》 대표와 《민주로총》로동자통일축구선수단도 참가하게 되었다. 축전에는 무려 1 000여명에 달하는 많은 해외동포들도 참가하였다.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는 온 민족과 진보적인 유의 관심과 기대 속에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99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가 성대히 개최되었다.

특색 있는 행사들로 이채를 띠면서 전례 없이 성대히 진행된 이 통일대축전은 북, 남, 해외의 3자련대의 새로운 장을 열친 대정치축전으로서 온 겨레의 통일열의와 의지를 힘있게 표시하였다.

본사기자 현은경

상봉의 기쁨을 관계개선의 더 큰길로

지금 민족의 명산 금강 산에서는 북남 흘어진 가족, 친척 상봉이 온 겨레와 세계의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분열의 비극 속에 수십년 세월 생사조차 알길 없어 마음속으로만 그려보던 혈육들을 만난 기쁨과 감격, 통일의 열망으로 지금 금강산이 설레이고 있다.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는 달라도 만나자 정이 통하고 뜨겁게 열싸안는 혈육들의 감격적인 상봉은 퍼줄도, 언어도, 문화도, 혁신도 하나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는데 통일이 있음을 다시금 가슴벅차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흘어진 가족, 친척 상봉은 공화국의 뜨거운 동포애와 주동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분열의 비극을 하루빨리 끌어내며 흘어진 가족, 친척들에게 상봉의 기쁨을 통으로써 민족의 머리우

시종일관한 입장이다. 공화국은 지금껏 흘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을 마련하기 위해 주동적이고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2000년에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되고 지금까지 이루어져온 흘어진 가족, 친척상봉은 공화국의 이런 성의 있고 인내성 있는 노력과 떼여놓고 생각 할 수 없다.

공화국의 주동적인 제의와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보수 《정권》이 등장한 이후에도 북과 남사이에는 수차의 흘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실현될 수 있다.

내외반통일호전세력의 반공화국모략과 북침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가 교전직전까지 치달아올랐던 지난 8월의 최극단의 정세상황 속에서 공화국은 주동적으로 북남고위급급접촉을 열고 일촉즉발의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

천리길도 한걸음에서 시작된다고 북과 남은 이번 흘어진 가족, 친척상봉의 성과를 귀중히 여기고 화해정신을 줄기차게 이어 관계개선의 풍성한 가을을 하루빨리 안아와야 한다.

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장 구름을 밀어내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였다.

북남고위급급접촉결과는 바로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숭고한 리념의 승리이다.

북남고위급급접촉에서 이룩된 합의에 따라 이번의 북남 흘어진 가족, 친척상봉도 진행되게 되었다. 이것만 보아도 북남합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다. 그 합의를 성실히 리행하여 관계개선의 새로운 장을 펼치려는 공화국의 의지는 확고부동한 것으로 되고 있다.

천리길도 한걸음에서 시작된다면 북과 남은 이번 흘어진 가족, 친척상봉의 성과를 귀중히 여기고 화해정신을 줄기차게 이어 관계개선의 풍성한 가을을 하루빨리 안아와야 한다.

본사기자 최명재



최근 남조선집권자는 도이칠란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도이칠란드통일경험은 매우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다.》

느니, 《국제사회와 협조와 지지도 대단히 중요하다.》 느니 뭐니 하고 력설했다. 그런가하면 며칠 전에도 미국에 날아가 상전파이마를 맞대고 《도이칠란드통일》과 《베를린장벽붕괴》에 대해 들었다.

남조선의 집권자와 보수당국이 틈만 나면 불어대는 《도이칠란드통일》이나, 그 《경험》이니 하는 것은 여전히 어리석은 개꿈에 사로잡혀 《흡수통일》을 이루어보겠다는 것이다.

남조선집권자는 지난 시기에도 도이칠란드에까지 가서 이 나라의 《통일경험》을 그대로 본딴 《드레즈덴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하여 내외의 비난과 저주를 받았다.

남조선당국은 이미 전부터 그 무슨 《통일준비》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며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기구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그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것이 《흡수통일》을 추구하는 극악한 반통일체제 대결모략기구라는 것은 그

들 자신의 실로로써 이 미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다.

현시기 북과 남사이에는 관계개선의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지난 8월 하순에 있은 북남고위급급접촉합의의 결과로 북남사이의 평화와 안정, 화해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교전직전까지 치달아올랐던 최극단의 정세상황 속에서 공화국이 주동적으로 북남고위급급접촉을 열고 무

남조선보수당국의 동족대결 흥분, 《체제통일》야망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지금 외세와의 그 무슨 《통일외교》에 분주탕을 피워대고 있는 것도 동족을 압박하고 이른바 《저들 주도의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인정과 지지를 확대해나가려는 기도의 산물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이 추구하는 《흡수통일》은 명백히 동족대결의 길이며 이 되여 날뛴다면 북남사

이의 불신과 대결은 더욱 격화되고 나중에는 이 땅에서 전쟁밖에 터질것이 없다. 그때에 가서는 이 땅에 《통일대박》이 아니라 큼직한 재난만이 올 것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은 《흡수통일》의 어리석은 망상에서 깨여나야 한다. 남조선의 이전 집권자인 리명박도 《통일은 한반도에 도적같이 올수 있다.》 느니 뭐니 하며 한 때 《통일창아리》를 열심히 빚었지만 결국은 겨레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 《창아리》에는 지금 거미줄만 쓸어있다.

남조선당국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그들이 찍하면 그 누구의 통일을 뛰어들며 어찌 고저쩌고 하는데 여기는 조선반도이자 도이칠란드가 아니다.

이 땅에서 통일은 도

이칠란드식으로가 아니라 우리식으로 온다. 우리 민족의 확고한 지향과 굳센 의지는 바로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식으로 통일을 이루하는 것이다. 우리식의 통일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이고 동족대결이 아니라 화해와 단합에 의한 통일이다.

남조선당국이 언제 가도 이를수 없는 허황한 꿈만 꾸면서 외세와 작당하여 동족의 사상과 제도를 압살하기 위한데만 혈안

북남 흘어진 가족, 친척상봉 진행

북남 흘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금강산에서 시작되었다.

20일부터 22일까지 북측 상봉자들은 남녘의 가족, 친척들과 상봉을 하였다.

상봉장소는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분열의 비극 속에 수십년 세월 생사조차 알길 없어 마음속으로만 그려보던 혈육들을 만나게 된 기쁨과 통일의 열망으로 설레이였다.

북측 상봉자들은 22일 남녘의 가족, 친척들과 작별하였다.

북의 주동적인 조치와 뜨거운 동포애에 의하여 마련된 북남 흘어진 가족, 친척상봉은 온 겨레와 세계의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 서로로서 잡은 손을 놓지 못하며 헤여지기 아쉬워하는 그들의 모습은 우

본사기자



최근 미국을 행각한 남조선집권자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까지 진행하면서 《핵위협》, 《인권문제》 등 동족을 걸고드는 혐담들을 또다시 늘어놓았다. 미국 상전파 한목소리로 동족 대결의 악청을 듣구고는 무슨 큰 성과가 있는듯이 돌아와서 그에 대해 법석 떠들어대고 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종래의 케케묵은 동족 압살과 대결의 보파리를 다시 풀어야 청탁이 있다.

미국의 나팔수

이번에 남조선집권자가 미국과 함께 입에 힘을 주어 말한것이 《북핵문제》였다.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느니, 《추가도발하면 강력히 제재》 한다느니 하는 것이다.

가소로운 궤변이다.

공화국은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위적 핵억제력을 보유한것이 아니다.

지난 조선전쟁시기를 비롯하여 미국의 핵위협을 항시적으로 받아오고 있는 우리 민족이다.

조선반도에 종전이 아닌 정전상태가 지속되고 미국의 핵위협이 세기를 넘어 오늘까지 그 도수가 계단식으로 확대되고 있는 조건에서 침략적이고 강도적인 미국의 핵위협을 막기 위해 자위적 핵억제력을 보유하는 것은 천만번 정정당당한것이고 누가 시야비야 할수 없는 자위적권리행사이다.

미국이 이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미국이 왜 지금까지 《북핵문제》를 강조해왔겠는가.

공화국을 암살해야겠는데 핵억제력이 있어 저들의 기도가 실현될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비상히 강화된 공화국의 핵억제력은 미국의 침략적인 대조선정책의 종국적인 파

언제면 대결악습을 버리겠는가

온 《위협》이고 《도발》이라고 하고 있다.

그를 구실로 국제사회를 위협공갈하고 압박회유하여 《대북제재》를 조작해낸다.

공화국의 정의를 《불의》로 인식시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질식시키자는 것이다.

궁극에는 공화국이 그 압력에 자위적 핵억제력을 포기하고 스스로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것이 미국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이다.

남조선집권자에게 현실과 정세에 대한 감각이 모래알만큼 있었어도 미국의 궤변에 합창하지 않았을것이며 이번 미국나들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인권을 행사한다.

이런 공화국에 《인권》문제가 있다고 떠드는 사람들의 사고에 진짜 문제 가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세계에서 가장 존엄높은 공화국인민들의 인권을 걸고들며 반공화국 압살의 수단으로 삼는 미국의 모략선전에 목소리를 합친 남조선집권자는 현대의 학이 진단할 수도 치료할수도 없는 불치의 《인권법》을 앓고있는 가싶다.

이번 미국나들이에서도 남조선집권자는 《개탄스러운 인권상황》이니, 《인권개선》이니, 《책임규명》이니 뛰니하고 공화국인민들의 존엄높은 인권에 대해 혀가 돌아가는데로 말했다.

마치 외통눈이가 두눈이 멀쩡한 사람을 《병신》이라고 떠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남조선의 현 인권실태를 보면 차마 눈뜨고 못 볼 형편이다.

열마전 공화국에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성대히 경축하였다.

행사의 전반호름은 인민사랑, 인민존중, 인민중시로 수놓아온 자랑찬 70년의 총화였다.

광장에 올려 펴진 절세위인의 뜻깊은 연설도 인민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하여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로 마감지었으며

《인권》을 떠들기 전에 보라

구절구절이 인민을 당파 정권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라고 칭송하는 주옥같은 명언들이였다.

로동당창건 70돐을 맞으며 나라의 곳곳에 일떠선 기념비적 건축물들도 모두 인민의 생활상상을 위한 성과물들이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인민대중제일주

의》, 《멸사복무》, 공화국에서 울리는 이 소리들은 구호가 아니라 그대로 정치이고 정책이며 그것이 꽂혀난 인민사랑의 현실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 인민을 기만도 세상을 놀래우는 큼직큼직한 정치추문들이 이 꼬리를 물고 편발하고 있다.

오죽하면 남조선인민들이 《지옥같은 한국》이라며 《탈출하고 싶다.》고 서슴없이 말하고 지난 세

기의 농민봉기군들처럼 썩은 세상을 뒤엎으려 《죽창을 달라.》고 웨치고

수치스러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자살률, 빈곤률, 대학등록금, 산업재해...

거기마다 끓어 터지고 썩어 문드러져가는 정치로 하여 현 보수집권시 기만도 세상을 놀래우는 큼직큼직한 정치추문들이 이 꼬리를 물고 편발하고 있다.

오죽하면 남조선인민들이 《지옥같은 한국》이라며 《탈출하고 싶다.》고 서슴없이 말하고 지난 세 기의 농민봉기군들처럼 썩은 세상을 뒤엎으려 《죽창을 달라.》고 웨치고

있겠는가. 화사한 얼굴에, 옷차림에 해외를 떠돌면서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운운할 겨울이 있으면 제집 안뜰부터 들여다보고 말해야 할것이다.

그렇게 못하겠으면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에게 《중동이나 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산으로나 갈게지.》라고 할것이 아니라 집권자 자신이 보파리를 꽂져들고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으로 영영 가버리는것이 좋을것이다.

한 남의 것으로 《대북정책》을 꿰매고 있는 현집권자는 리명박여도의 《비핵, 개방, 3 000》과 꽂같은 타령을 하며 그 전철을 밟고 있다.

민족의 통일문제는 우주에 없는 사람은 맹종맹동하기 마련이다.

사대의 종말은 망국이고 강대국들의 힘을 빌어 《정권》을 부지하는 것은 승냥이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남조선집권자가 진정으로 민족을 위하고 통일을 바란다면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으로 외세사대의 길로 갈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과 힘장을 가지고 자주의 길, 북남관계개선과 화해, 협력의 길로 나가야 한다.

그것이 민족통일에로 가는 길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통일에로 가는 길은

《핵을 포기하면 밝은 미래를 보장한다.》, 《북의 핵포기와 개혁,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

미국에서 한 남조선집권자의 이 말은 누구의 말과 너무도 닮았다.

다름아닌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힌 리명박여도의 실패한 《대북정책》인 《비핵, 개방, 3 000》이다.

남조선집권자가 모방의 능수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있다.

랭전시기 동유럽 사회주의권을 붕괴시키려는 미국과 서방세계의 《헬싱키 프로세스》를 본딴 《신뢰프로세스》, 도이췰란드의 흡수통일안을 이식한 《드레즈덴선언》, 건달군들의 속어를 빌려다 불인 《통일대박》, 《통일한아리》와 맞먹는 《통일파이노》...

제것이 아닌 열룩덜룩 속시킬수 없고 통일을 더

인권지옥에서 올리는 소리

괴물경제, 고물인생

작품부는 새벽, 인천 남동 《공단》 주변골목을 고철 죽는 할아버지와 함께 걸었다. 새로운 세상을 보았다. 빈곤의 구체는 금씩했다. …몇년에 걸친 취재를 거칠게 요약하자면 《보이지 않는 가난》이 《한국》 사회의 밀동을 훔들고 있고 주로 로인, 이주자, 장애인에게 가난의 피해가 집중되는데 더 심각한 빈곤 문제가 청년 및 청소년세대 전체에 번져있다.

시풀에는 가난한 로인들만 산다. 질병과 장애는 가난으로 굽락하는 몇이 됐다. 마음과 정신이 아픈 사람도 많아졌다. 그리고 짚은이들은 초조, 불안, 고립, 원망에 빠져있다. 장사하는

꿈만꾼다. 자영업시장의 붕괴때문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정규직로 동자가 되는 길도 막혔으니 그것말고는 도모할 일이 없어 그저 상념하는 허무한 꿈이다.

… 《한국》은 여전히 민주주의 결핍으로 신음한다. 인생은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바꾸는 과정이다. 력사 또한 그러하다. 민주주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1990년 대가 물었다. 2010년대 들어 질문이 바뀌었다. 경제발전은 도대체 무엇인가.

로인, 장애인, 이주자가 일종의 《소수자》라면 청년은 《다수자》이다. 주변인의 곤궁을 보듬는것이 사회안전망이

라면 다수자의 빈곤을 해결하는것은 《국가》의 기본책무다. 《한국》은 기본을 잊어가는 사회가 됐다. 청년빈곤은 《한국》의 사회경제적 몰락을 표상한다.

등지가 무너져 깃들 끗이 없는 청년들에 대해 지난 3월부터 협업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처음으로 청년빈곤에 대한 주요자료를 내놓는다. 여기에 추상이 아니라 구체로 꿈틀거리는 빈곤청년들의 이야기가 있다. 그들은 피물같은 경제의 몇에 걸렸다. 고물인생을 일찌감치 시작해버렸다.

《한겨레21》 편집장 (《한겨레 21》 2015년 8월 24일)



평화와 관계개선분위기를 해치는 군사적 도발

지금 온 겨레는 북남관계 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시종일관하고 적극적인 노력에 지지공감하면서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 대화의 새 국면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이와 반대로 동족을 반대하는 불장난소동이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남조선 군부호전 광들은 《2015 호국》 훈련이라는 도발적인 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았다. 이 달말까지 남조선전역에서 감행되는 이번 전쟁연습에는 대규모의 무장 장비들과 병력이 투입되고 있다.

남조선군 합동참모본부는 올해의 《호국》 훈련이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록해공군, 해병대의 《합동작전수행능력대회》에 중점으로 두고 각 작전지역에서 기계화보병사단 쌍방훈련, 해상 대특수작전부대훈련, 합동방공훈련 등이 벌어지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남조선당국이 《호국》 훈련을 벌려놓은 것은 북과 남의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

의 지향과 요구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다. 더우기 북과 남의 흘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이루어져 온 겨레가 기쁨을 함께 하고 있는 때에 상대방을 반대하는 불장난을 벌려놓은 것은 상식적으로 보나 도저히 납득될수 없고 용납할수 없는 도발 행위이다.

얼마전 미국을 행각한 남조선집권자가 《북핵》과 《인권》을 운운하며 외세와 반공화국 압박공조를 더욱 강화할 모의를 한 것도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온 겨례의 우려를 더욱 자아내고 있다.

지난 8월에 북남사이에 남조선집권자가 《북핵》과 《인권》을 운운하며 외세와 반공화국 압박공조를 더욱 강화할 모의를 한 것도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온 겨례의 우려를 더욱 자아내고 있다.

그것은 북남합의 정신을 짓밟으며 외세와 약합하여 반공화국 압박공조에 매달리는 남조선당국의 반민족적 처사 때문이다.

남조선당국은 공동보도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미국과 함께 북남사이의 군사적 충돌을 가상한 국 히 도발적인 《2015 통합화력격멸훈련》이라는 것을 력대 최대 규모로 벌리고 이어 《부인권법》 조작책 동파와 반공화국 빠라 살포소동을 감행하는 등

화해의 분위기가 아니라 동족 대결소동에 열을 올리였다. 남조선호전 광들이 미

야 한다는 쓸개빠진 망언을 하였으며 군부당국은 일본 가나가와현 앞바다에서 진행된 해상 《자위대》 관함식에 전투함선을 파견하였다.

이러한 속에 지난 20일에 열린 일본남조선사이의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일본 《자위대》의 조선반도 진출문제 등 군사협력과 관련한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일본이 재침을 노리며 군국주의 부활과 전쟁의 길로 미친듯이 질주하고 있는 때에 그것을 묵인하며 일본파의 반공화국 대결공조에 팔을 걷고나서는 민족의 운명을 위협하는 사대대국 행위이다.

민족의 운명이야 어찌 되든 반공화국 대결정책만 실현하면 그만이라고 타산하며 민족의 백년숙적을 끌이들이려 하는 것이 야말로 을사오적도 낯을 끝힐 국악한 친일대국 행위가 아닐수 없다.

온 민족은 어리석은 《체제통일》 야망에 물젖어 동족 대결과 친일사대 대국 행위에 광분하는 현 보수집권 세력의 반민족적 범죄행위를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놀음

역사교육은 민족의 흥망성쇠와 관련되는 중대한 사업이다.

후대들에게 옳바른 역사관과 민족관을 세워주지 못하면 민족의 장래가 담보될 수 없다는 것은 장구한 역사의 교훈이기도 하다.

더우기 반세기 이상 분별의 비극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옳바른 역사교육 문제는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도 매우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금 남조선에서는 역사교육을 동족대결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보수당국의 범죄적 책동이 로그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도입을 정식 발표한 남조선당국은 각계의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가 비발치자 현행교과서들이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느니 《북체제가 정상인듯이 서술하고 있다.》느니 하며 저들의 책동을 합리화해나서고 있다.

얼마전에도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이 어느 한 자리에서 《역사전쟁》이니, 남조선의 《국사학자는 90%가 좌파로 전환됐다.》느니 하며 대결 악청을 돌구었다.

케케묵은 《색갈론》을 동원해서라도 저들의 범죄적 목적을 기어이 실현해보자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교과서를 통해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불어넣고 사회를 더욱 파쑈화, 반동화하려는 남조선당국의 책동이 얼마나 집요하고 위험천만한가 하는 것을 그대로 실증해주고 있다.

남조선에서 현 《정권》이 출현한 후 보수집권세력이 《심각하게 편향된 역사관》을 바로 잡는다는 궤변을 들어놓으면서 나아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공화국대결교육을 강화해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현 집권자가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

기 바쁘게 다음해 고등학교들에서 사용될 역사교과서의 내용들을 동족을 헐뜯는 내용으로 수정보충하는 것을 강박한 사실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당시 남조선당국이 역사교과서에 반영할 것을 강요한 내용들을 보면 공화국에서 진행된 토지개혁을 혐오하고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경제에 대해 중상하며 《천안》호와 연평도 사건의 책임을 북에 넘겨씌우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외곡하고 동족 대결을 고취하는 적대적이며 도전적인 것들이었다.

이뿐이 아니다. 일제식 민지통치시기의 친일매국 노들을 그 무슨 《성장》의 주역으로 미화하고 5.16군사쿠데타와 남조선 일본 《협정》 체결을 터무니없이 《혁명》과 《경제 발전의 계기》로 외곡하는가 하면 미국의 조선민족 분열책동을 친양하고 《유신헌법》은 《북의 위협》에 대처한 것으로 정당화한 《뉴라이트교학사》 교과서가 현 보수 《정권》의

검정심의에서 그대로 통과되어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었다.

제반 사실들은 역사의 진실을 악랄하게 외곡하면서 신성한 교육마당까지 동족대결의 공간으로 전락시키려는 보수집권세력의 발악적인 책동이 파연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현 사태를 그저 스쳐지 난다면 나라의 평화와 통일,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커다란 부정적 후과가 미치게 될 것이다.

민족이 화해와 통일에로 나아가야 할 때에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역사교과서를 만들어내려는 것은 죄악이며 시대착오적인 망동이다.

새 세대들에게 정의와 진리를 가르치고 조국통일의 절박성을 깨우쳐주지는 못할 망정 분열의 비극속에 커가는 그들마저 동족대결의 희생물로 만들려는 남조선당국의 책동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리수영



남조선 각계가 반 《정부》 투쟁 전개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당국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놀음을 규탄하는 남조선 각계의 투쟁이 17일 서울에서 광범히 벌어졌다.

《국정교과서 반대 청소년 행동》이 거리행동을 전개하였다.

서울과 경기도, 대구 등 각지의 청소년들이 서울 종로구에서부터 《정부》 종합 청사까지 시위를 벌리면서 《친일, 독재미화 국정교과서 반대》, 《(정부) 는 역사를 진드릴 권리 없다.》 등의 글이 써여진 선전물을 들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규탄하였다.

그들은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려는 시도에는 친일, 독재를 미화하기 위한 음모가 깔려 있다고 폭로하였다.

친일파 독재를 미화하는 《국정교과서》로 배울 수 없기에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하면서 청소년 학생들이 힘을 합쳐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막아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그들은 선언하였다.

한편 460여개 시민사회, 역사단체들로 구성된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가 서울 세종로에서 범국민 집회를 가지였다.

단체 대표들은 규탄발언

청소년, 대학생, 학부모, 시민들의 《국정교과서》 반대 목소리가 거세차게 울려나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유신》 독재, 친일의 장본인이었던 독재자 후예의 역사쿠데타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려는 정의의 웨침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온갖 거짓으로 교과서를 《국정화》 하려는 시도야말로 반민주적인 폭거라고 단죄하였다.

옳바른 역사를 위한 투쟁에 각계가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그들은 엄명하였다.

집회에서 단체는 앞으로 서명운동, 초불투쟁 등을 통해 《국정교과서 제》를 단호히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시민행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을 발표하였다.

서울 종구에서 《정부》의 역사쿠데타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초불투쟁이 벌어졌다.

발언자들은 현 《정부》가 친일파 독재를 미화하는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데 격분을 금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국정화》 책동을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초 불투쟁 참가자들은 《역사쿠데타 중단하라!》, 《(정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거리를 행진하였다.

단체 대표들은 규탄발언

들을 통해 남조선 곳곳에서



미군 철수 계획을 왜 연장 하였는가

10월 15일 미 국대통령 오바마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7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 5 500명의 미군이 주둔 하며 2016년에는 현존 병력 9 800명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프가니

스탄의 이슬람교 무장 조직 탈리반은 대변인을 통하여 오바마의 미군 철수연기 계획이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반박하면서 미국의 그 어떤 결정도 아프가니스탄 강점군에 대한 탈리반의 항전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세 분석가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강점책동과 이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탈리반의 반항으로 하여 이 지역에서의 정세는 오랜 기간 불안정 할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올해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침략전쟁의 불집을 터뜨린 때로부터 14년이 된다.

2001년 세계를 놀라운 9.11사건이 터진 후 미국은 《반테로전》의 미명 하에 2001년 10월 7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침략전쟁을 개시하였다. 하늘과 땅에서 무차별적인 공격작전들을 개시하여 1개월도 못 되는 사이에 탈리반 정권을 뒤집어엎은 미국

은 이과정에 탈리반과 알 카에다를 소탕한다는 미명 하에 무고한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하였다. 지어는 결혼식집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이것은 그대로 아프가니스탄 인민들의 분노를 자아냈고 반미 항전으로 이어졌다. 탈리반과 그와 류사한 그루 둘도 폭력적인 보복조치들을 련이어 취하였다.

순간에 아프가니스탄을 먹을 수 있다고 타산하고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 미국은 갈수록 헤어나올 수 없는 진멸에 빠진 신세가 되었다.

2008년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입기내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종결하고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세우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오바마는 집권 후 자기의 선거 공약을 뒤집어엎고 3만 5 000여 명이던 미군을 10만 명으로 늘이는 등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확대하였으며 수천 억 US\$를 전쟁비 용으로 쏟아부어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더욱 악화시켰다.

선거 공약을 백지화한 오바마의 아프가니스탄 정책은 그대로 반대파들의 공격의 대상으로 되었고 자국내 인민들의 커다란 우려와 불안 만을 자아냈다.

이로부터 오바마는 2014년

지금 남조선집권세력이 각계

의 항의 규탄에 불구하고 강행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놀음을 사실이다.

그런 역도가 미국의 조종 밖에 5.16군사쿠데타를 감행하고 권력을 나꾸어 채였을 때 제일 기뻐한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 광신자들이였다.

당시 일본 우익 정계는

친일 매국을 애국으로 둔갑시 키기 위한 과정을 거쳐 《근대화를 실현시켜준 혜》로 잘못 인식하게 되었다.

친일이 빠져나온 물건은 《유신》 독재자는 집권 기간 《옛날의 일은 없었던 일로 훌려버리고 수교를 정상화하는 것이

조선 민족을 상대로 저지른 침략과 식민지배

책동은 백년 천년이 가도 지울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만고죄 악이다. 하기야 해방전이나 이후 그리고 세기가 바뀐 오늘도 남녀 인민들을 비롯하여 온 겨레가 일본에 대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일본에 아부굴 종하며 식민지통치에 협력한 친일파들의 죄상도 민족과 역사로 빠져나온 이전 《유신》 독재자도 있다.

그가 일제의 조선강점 시기 《특등일본인》이 되려고 이름까지 《오까모도 미노루》라는 일본식으로 고치고 일본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까지 쓰며 일본 군장교가 되어 조선독립운동가들을 《토벌》하는데 앞장선 극악한 친일 주자였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장하는 희로분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쓸개 빠진 친일 매국 노들의 혁사와 광행위가 그대로 교과서에 담겨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라나는 남조선의 청소년 학생들이 일본의 친일파를 조선지배를 《근대화를 실현시켜준 혜》로 잘못 인식하게 되었다.

친일이 빠져나온 물건은 《유신》 독재자는 집권 기간 《옛날의 일은 없었던 일로 훌려버리고 수교를 정상화하는 것이

조선 민족을 상대로 저지른 침략과 식민지배

책동은 백년 천년이 가도 지울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만고죄 악이다. 하기야 해방전이나 이후 그리고 세기가 바뀐 오늘도 남녀 인민들을 비롯하여 온 겨레가 일본에 대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현 남조선집권자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국에 대한 애비를 비롯한 친일파들의 수치스러운 매국 배족의 경력을 가리우고 합리화하려는 주요한 목적이다.

현실적으로 현 남조선당국이 《국정화》를 통해 수정하는 역사교과서의 본보기로 삼으려 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교과서들은 일본의 조선강점과 친일 매국 행위가 빠져나온 것에 바로 제국에 대한 애비를 비롯한 친일파들의 수치스러운 매국 배족의 경력을 가리우고 합리화되며 일본에 대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그가 일제의 조선강점 시기 《특등일본인》이 되려고 이름까지 《오까모도 미노루》라는 일본식으로 고치고 일본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까지 쓰며 일본 군장교가 되어 조선독립운동가들을 《토벌》하는데 앞장선 극악한 친일 주자였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현실적인 외세에 아부하여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은 친일 매국 노들 중에는 이전 《유신》 독재자도 있다.

그가 일제의 조선강점 시기 《특등일본인》이 되려고 이름까지 《오까모도 미노루》라는 일본식으로 고치고 일본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까지 쓰며 일본 군장교가 되어 조선독립운동가들을 《토벌》하는데 앞장선 극악한 친일 주자였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현실적인 외세에 아부하여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은 친일 매국 노들 중에는 이전 《유신》 독재자도 있다.

현실적으로 현 남조선당국이 《국정화》를 통해 수정하는 역사교과서의 본보기로 삼으려 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교과서들은 일본의 조선강점과 친일 매국 행위가 빠져나온 것에 바로 제국에 대한 애비를 비롯한 친일파들의 수치스러운 매국 배족의 경력을 가리우고 합리화되며 일본에 대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현 남조선당국이 《국정화》를 통해 수정하는 역사교과서의 본보기로 삼으려 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교과서들은 일본의 조선강점과 친일 매국 행위가 빠져나온 것에 바로 제국에 대한 애비를 비롯한 친일파들의 수치스러운 매국 배족의 경력을 가리우고 합리화되며 일본에 대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현 남조선당국이 《국정화》를 통해 수정하는 역사교과서의 본보기로 삼으려 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교과서들은 일본의 조선강점과 친일 매국 행위가 빠져나온 것에 바로 제국에 대한 애비를 비롯한 친일파들의 수치스러운 매국 배족의 경력을 가리우고 합리화되며 일본에 대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현 남조선당국이 《국정화》를 통해 수정하는 역사교과서의 본보기로 삼으려 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교과서들은 일본의 조선강점과 친일 매국 행위가 빠져나온 것에 바로 제국에 대한 애비를 비롯한 친일파들의 수치스러운 매국 배족의 경력을 가리우고 합리화되며 일본에 대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현 남조선당국이 《국정화》를 통해 수정하는 역사교과서의 본보기로 삼으려 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교과서들은 일본의 조선강점과 친일 매국 행위가 빠져나온 것에 바로 제국에 대한 애비를 비롯한 친일파들의 수치스러운 매국 배족의 경력을 가리우고 합리화되며 일본에 대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현 남조선당국이 《국정화》를 통해 수정하는 역사교과서의 본보기로 삼으려 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교과서들은 일본의 조선강점과 친일 매국 행위가 빠져나온 것에 바로 제국에 대한 애비를 비롯한 친일파들의 수치스러운 매국 배족의 경력을 가리우고 합리화되며 일본에 대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현 남조선당국이 《국정화》를 통해 수정하는 역사교과서의 본보기로 삼으려 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교과서들은 일본의 조선강점과 친일 매국 행위가 빠져나온 것에 바로 제국에 대한 애비를 비롯한 친일파들의 수치스러운 매국 배족의 경력을 가리우고 합리화되며 일본에 대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고려의 왕궁이 수백년의 잠을 깬다

* 만월대 유적 유물 전시회장을 찾아서 *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왕궁유적들 중의 하나인 만월대 왕궁터가 수백년의 잠을 깨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달이 솟는 밤이면 그 곳에서 달을 바라보았다고 하여 망월대라 불리우던 것이 세월의 흐름과 함께 만월대로 불리워졌다. 그리고 밤하늘의 달빛이 속속들이 비쳐들어 만월대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이곳에서 지난 10월 15일 북남공동학술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날부터 시작하여 년말까지 계속 진행되는 만월대 유적 유물 전시

하많은 역사를 땅속에 묻고

918년 고려를 세운 왕건은 만월대 건설을 다그쳐 919년 왕궁을 매우 화려하고 웅장하게 꾸며놓았다. 만월대의 왕궁은 강화도에 도읍을 일시 옮겼던 40여년간 (13세기 중엽)을 제외하고는 고려왕조의 기본 왕궁이었다.

지금도 거의 원상 그대로 자기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만월대의 계단을 이어 배치된 회경전, 장화전, 원덕전과 건덕전을 비롯하여 수십여 개의 집터자리들을 통하여 우리는 만월대가 당시로서는 대단히 큰 건물이었다는

회장으로는 사람들이 련일 찾아오고 있다.

우리 나라의 첫 통일국가였던 고려의 수도, 민족문화를 빛내인 유적의 도시에서 북남에 의해 유적 유물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크다.

부귀와 사치, 왕권의 당당함을 자랑했을 수많은 청자기들이며 석상들과 금속공예품들이 사연 많고 수난 많던 이 땅의 어제와 함께 통일을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의 강토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의 슬기와 지혜에 대하여 속삭여주는 듯싶었다.

것을 알수 있었다.

1011년 외적의 침입으로 만월대는 화재를 입어 복구를 하게 되었다.

그 후에도 만월대는 1126년 리자겸, 척준경의 반란과 1171년에 일어난 화재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화재를 입었다.

그러던 1392년 조선봉건 왕조의 수립을 계기로 만월대는 다시는 수복되지 못한 채 자기의 하많은 역사를 땅속에 묻고 세월의 이끼 속에 가리워져왔다.

발어 참성이랴 불리우던 자그마한 성에서부터 시작하여 만월대라는 큰 궁

성을 형성하고 근 500년간 존재한 고려의 역사가 고스란히 재가루를 뒤집어 산채를 엉터었던 수백년 전 해지고 있다.

함께 찾아내는 민족의 재보

만월대 궁성 유적이 아직 발굴되기 전이었던 주체 81(1992)년 5월 5일 왕건 왕릉을 찾으시었던 위대한 김일성 주석께서는 만월대에 오르시여 이곳을 민족의 유산으로 훌륭히 복원 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역사적인 6·15 공동 선언의 채택 리행으로 북남 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궤도를 타고 달리던 2007년 5월 발굴의 첫삽을 박은 북파 남의 공동 발굴대는 만월대 궁성의 서부 지역에 대한 탐사를 시작했다.

만월대의 중심 건축군으로 추측되는 회경전과 장화전, 원덕전의 서쪽에 자리 잡은 서부 건축 군에 대한 발굴이 먼저 진행된 것은 바로 이 지역에 왕의 침전으로 리용되었다고 하는 건물들이 있었으며 전덕전이라고 하는 흥미 있는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124년 송나라의 황제가 보낸 사신이 만월대를 다녀간 후 남겼다는 『고려 도경』이라는 책에 고려

의 역사와 보물들과 함께 전덕전을 중심으로 한 만월대의 건물 배치가 있었다.

그 책에는 만월대의 서쪽에 왕의 침전이 있었으며 전덕전이라고 하는 큰 건물이 있었다. 전덕전의 우측에는 장화전이 있었고 장화전의 우에는 왕의 조상들을 제사지내던 원덕전이 있고 아래로는 국사를 론하던 회경전이 있었다. 그리고 그 동쪽에는 태자가 살던 동궁이 있었다는 식의 기록이 있었다.

또한 전덕전이 회경전과 함께 정사를 보던 건물이지만 고려 초기부터 있었던 건물인 것으로 하여 만월대의 역사가 해명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 있다.

때문에 발굴대는 전덕전의 위치를 찾아내는데 발굴의 열쇠가 있다고 보고 서부 건축물들의 발굴에서부터 만월대의 모습을 재현해보기로 했다.

이렇게 시작된 발굴 사업은 남조선에서 보수



왕 건 좌상

『정권』이 등장하면서 애말로 외세의 간섭이 없고 외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진정한 통일의 공통 분모이라고 가슴 속 진정을 터치했다고 한다. 우리와 안면이 있는 평양민족공원 학술실장은 이 나라의 역사와 연구하는 학자로서 만월대 발굴

단의 한 성원이 된 것을 행운으로, 자랑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세계적인 유적을 발굴하는 궁지도 크지만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결음에 자기의 적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어 더욱 기쁘다고 말하였다.

1만여 점의 유물들이 발굴되어

이번 유물 전시회에서 인상적인 것은 송악산을 배경으로 전시된 왕건 좌상이다.

만월대의 주인이며 송악산 기슭에서 태여나 거기서 생을 마감한 왕건의 좌상은 왕건 왕릉 발굴 당시 풍의 뒤편에서 출토된 유물이라고 한다.

왕건이 세상을 떠난지도 1000여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청동 조각상은 왕궁 유적인 만월대 유물 전시회의 품격을 강조해주는 듯싶다.

지금까지 무려 7차에 걸친 발굴과정에 발굴대는 1만여 점의 청동 유물과 청자기, 고려 백자기들과 화강석 잡상들 그리고 고려 시기의 벽돌과 기와 등을 발굴하였다.

이번에 출토된 유물들은 왕의 침전과 정전 등 왕족들의 개체 생활과 내부 생활에 쓰이던 것들로서 세공술과 질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유물들로 보여진다.

특히 청동으로 만든 세발솥과 원통형 청자기, 청

자기로 만든 철구공이와 농음무늬 장식 접철, 청동 장식판들은 고려 왕실의 사치함과 호화스러움을 다소 짐작할 수 있게 했다.

고려 왕궁에서 발굴된 동전과 유약을 바른 도기병, 청자기에 련꽃을 돌을 무늬로 새긴 청자련꽃동을 무늬 접시, 청자 모란꽃동을 무늬 8각 접시 등을 통해 참관자들은 고려의 문화와 상업이 발전했으며 특히 도자기 공예가 뛰어났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고 있다.

1000여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지만 조금도 변함이 없이 원상대로 보존된 일부 유물들을 보면 사람들은 놀라움과 경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화국의 민족문화 유산 보호정책과 민족의 역사 를 길이 빛내이려는 북남 역사 학자들의 공동 노력에 의해 앞으로 이곳 만월대에서는 고려 왕궁과 관련한 더 많은 값진 유적 유물들이 옛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강류성



날로 개화 발전하는 산업 미술

무릇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에서 산업 미술은 척후대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해당 나라의 경제 발전은 산업 미술의 발전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평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앙 산업 미술 전시회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 최근년 간 몰라보게 발전하고 있는 공화국의 산업 미술 면모를 보여주는 의의 깊은 계기로 되고 있다.

전시회장에는 각종 산업

미술 도안 3000여 점과 실현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금수산태 양궁전 주석 단도 안과 공원 분수 조각 형성 안,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 외부 장식 도안과 현관 홀 입구 장식 형성 안, 영웅 흘벽면 장식 형성 안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나라와 민족 앞에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시려 온 갖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충정의 세계와 위인상을 뜨겁게 새겨주고 있다.

전시회장에는 인민들의 기호에 맞으면서도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건축물들의 형성 도안과 간판도 상표도 안들도 전시되어 있어 참관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3대 혁명 전시관의 전자판, 중공업관 전시 대형 성안들과 새로 일떠서고 있는 과학 기술 전당 판련 도안들은 볼수록 최첨단을 돌파하며 세계로 비약해 가는 공화국의 기상과 위용이 한 눈에 안겨오게 한다.

그런가하면 지하 전동 치의 형태와 내부 도안, 미래 과학자 거리의 봉사 망간 판

도안들, 육아원, 애육원, 초등 학원, 중등 학원, 양로원에서 사용하는 집기류 도안들, 통라인 민유 원지의 웃음집, 거울집 간판들, 3500급 종합 봉사선 『무지개』 호 판련 도안 등은 실용적인 측면과 미적 측면을 유기적으로 잘 결합시켜 형상 한 것으로 하여 보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현대적이면서도 민족의 향취가 짙게 풍기는 평양 국제 비행장의 문주 도안과 기념 풍상점, 청량 음료 간판 도안들, 갈마비행장 항공역사 봉사 망간 판, 광고 도안들도 광고 대상의 본질적 내용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하면서도 도안의 간결성과 집중성, 상징성이 함축되어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전시회에서 이체를 떠는 것은 해당 건축물들을 상징하는 특색 있는 마크들이다. 원자 핵 주위로 돌아가는 전자들을 형상화한 과학 기술 전당 마크와 철쭉 꽃을 형상

한 평양 양말 공장 마크, 탑스러운 사파에 『대동강』이라는 글자를 새긴 대동강과 일종 합가공 공장 마크, 각 대학 마크들, 축구 공과 우승 컵을 형상화한 평양 국제 축구 학교 마크도 안들도 볼 수록 인상적이다.

전시된 마크도 안들 가운데는 공을 안고 노는 호랑이의 유모 아저씨인 모습을 형상화한 중앙 동물원 마크와 재주를 부리는 곱등어를 형상화한 통라 곱등어 판 마크, 단봉질로 말을 그린 미림 승마 구락부 마크, 눈우로 스키를 타고 달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마식령스키장 마크도 안들처럼 만화적이면서도 생동하고 실감이 나는 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마크도 안들도 적지 않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 밑에 최근 몇 해 사이에 몰라보게 발전하고 있는 공화국의 산업 미술의 눈부신 발전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중앙 산업 미술 전시회는 참관자들의 깊은 관심과 기대 속에 련일 성황을 이루고 있다.

본사기자 흥법식

동명왕은 우리나라의 첫 봉건 국가였으며 고구려의 시조왕이다. 그의 이름은 고주몽이다. 어려서부터 활쏘기를 잘 하여 주몽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고주몽에게는 류리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고주몽의 딸 아들이었다.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대단히 영특하였던 류리는 어려서부터 말타기를 익히고 활쏘기를 배웠는데 그 재주를 뛰어나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류리가 어렸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류리가 활과 화살통을 메고 버드나무 밭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동네 아이들이 달려와 날아가는 활쏘기 솜씨를 보여주고 있던 그를 본사기자 흥법식이 활쏘기 솜씨를 보여달라고 졸랐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고 아버지 못지 않은 명궁이었던 류리는 아이들 성화에 못이겨 멀리에 있는 나무 가지에 앉은 새를 겨냥하여 활을 당겼다.

그런데 『평』이라는 소리와 함께 그의 입에서는 『아차』하는 소리가 뛰어나왔다. 그가 활시위를 놓는 찰나에 동이를 인동네의 한 아낙네가 그의 눈과 파리 사이에 들어섰던 것이다. 화살은 아낙네가 머리에 인 물동이에 구멍을 내고 암탉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류리는 채빨리 화살에 진흙을 발라서 재차 쏘아 물동이에 난 구멍을 막았다고 한다. 그 후 류리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고구려의 2대 왕이 되었다.

